

『韓国語教育研究』(第1号) 別刷

ISSN 2186-2044

【特集】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최 기호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11年9月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최 기호

1. 머리말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은 국교를 새로 수립하였다. 그러니까 2010년은 한국과 몽골이 수교한 지 20돌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필자는 1990년 7월 6일 일본에서 몽골 비자를 받고 홍콩, 베이징을 거쳐 몽골 울란바타르 공항에 처음으로 도착하였다.¹ 그 당시 한국과 몽골은 통신수단이 전혀 없었다. 도쿄외국어대학에서 몽골어를 가르쳐 준 몽골의 등게르야체르 교수님의 명함 한 장이 몽골에 관한 정보의 전부였다.

몽골에 도착하여 선생님을 찾았고 선생님의 소개로 동양학연구소의 하이산다이 소장과 베. 하과(B.Lkhagwaa) 교수님을 만났다. 하과 선생님은 평양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유학하여 한국말을 배운 선생님이었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분이였다. 그 자리에서 하과 선생님과 나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의논하였다.

그래서 하과 선생님은 1990년 10월에 동양학연구소에서 ‘한국어강좌’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현대의 한국어 교육의 시작이었다. 그는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니 동양학 연구소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당시 권양순 대사에게 요청하여 개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몽골 한국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1990년 10월에 몽골에서 역사적인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1년 10월에는 몽골국립대학교에 한국어학과를 최초로 설립하였고 하과 교수가 학과장이 되었다. 이것이 몽골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¹ 필자는 1983년 일본 도쿄외국어대대학원에서 나에게 몽골어를 가르쳐 주었던 등게르야체르 교수님의 명함 한 장을 들고 몽골 방문길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몽골을 방문하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비자를 비롯하여 전화나 전보 등 모든 통신이 불가능하였다.

교육의 본격적인 출발이었다.²

한편 필자는 귀국하여 1990년 12월 14일 필자와 주채혁 교수, 박원길 교수, 남상궁 교수, 조오순 교수 등이 ‘몽골비사윤독회’를 만들었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 지금의 ‘한국몽골학회’가 창립되었다.³

2. 한국과 몽골의 교류역사

2.1 고려와 몽골제국의 교류⁴

한국과 몽골 사이에 이뤄진 문화적 교류의 최초 기록은 <고려사>에 있다.⁵ 995년에 유학생 10명을 거란에 파견하여 몽골어를 배우도록 했다는 기록이다.⁶

그리고 고려에는 몽골학이 성하게 되어 한학, 청학, 왜학과 함께 ‘사학’으로 중요시하게 되었다. 고려 때에는 통문관, 이학도감 등에서 역학(譯學)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사역원에 사학을 설치하여 전문 학관이 있었으며, 역관을 양성하여 한어, 몽어, 청어(여진어), 왜어를 교습하였고 여러 가지 전적이 구비되어 있었다.⁷

² 이에 앞서 베. 수미야바타르 교수는 1957년에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에 유학하여 홍기문 교수와 류열, 성소령 교수 등에게 수학하여 몽골에서 한국학을 시작한 창시자가 되었다.

³ 1993년에는 ‘한국몽골학회’가 학술지 <몽골학> 창간호를 간행하는데 필자는 당시 몽골학회 회장으로서 ‘창사’를 써서 감회를 밝힌 바가 있다. 이것이 한국에서의 몽골학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⁴ 예수케이의 맏아들 테무진이 인근의 군소 족속을 정복하고 내외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세력을 넓혀 갔다. 테무진은 1206년에 쿠릴타이라는 대회에서 대칸으로 추대되어 ‘칭기스칸’이라고 칭해졌고 그 뒤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인류사상 가장 거대한 대몽골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⁵ 이 시대의 사료나 관련 기록으로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사서와 <익제난고(益齊亂藁)>, <원감록(圓鑑錄)> 등의 문집과 <박통사(博通事)>, <노길대(老乞大)>,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동문선(東文選)>, <동국병감(東國兵鑑)> 등이 있다.

⁶ <고려사>에는 을미년 14년(995)에 유학생 10명을 거란에 파견하여 몽골어를 배우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乙未十四年 遣童子十人 於契丹 習其語” <고려사 제 3권> 여기에서 그 언어는 몽골어를 말하는 것으로 고려와 몽골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교류의 최초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⁷ 특히 고려시대에는 몽골학이 매우 왕성하여 많은 몽골어 교과서가 발간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에 몽골학이 얼마나 융성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한편 몽골 장군 살리타이가 고종 18년(1231)에 제 1차 침입을 하였다. 이로부터 몽골은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그래서 몽골은 여러 분야에서 고려에 영향을 끼쳤다. 몽골 원나라가 1368년에 멸망하니까 약 137년 간 직접, 간접으로 많은 문화교류가 이뤄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서 자연스럽게 문물이 오고 갔으며 차용어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몽골에는 ‘고려양(高麗樣)’이 생겼고 고려에는 ‘몽골풍(蒙古風)’이 많이 나타나서 문화 교류의 단면을 보여주게 되었다.⁸

이렇게 볼 때 몽골과 학술 및 문화교류에 대한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상당히 오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근대의 몽골과 한국의 교류

몽골과 한국은 옛적부터 끊임없이 문물의 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명나라와 청나라 때부터 1990년도까지 양국 관계는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그 동안 몽골은 약 200년간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1921년에 공산혁명을 이루어 1990년까지는 소련의 지배와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한국과 교류할 수 없었다.

한편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기에 교류가 불가능했다. 그리고 미소 양군에 의한 한반도 분담 점령, 양 진영 간의 분리 대립 투쟁으로 인해 몽골과 교류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1978년에 스포츠 교류에서 시작되어 1990년 외교수립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교가 수립되어 1995년에는 서울과 울란바타르간의 비행기 직항로가 개설되었다.

그후 교류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방문하여 교류기 활성화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그 책들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왕가한(王可汗)>, <고난(高難)>, <가둔(加屯)>, <첩월진(帖月眞)>, <토고안(吐高安)>, <속팔실(速八實)>, <하적후라(何赤厚羅)>, <거리라(巨里羅)>, <백안파두(佰顔波豆)>, <어사잠(御史箴)>, <황도대훈(皇都大訓)>, <공부자(孔夫子)>, <대루원기(待漏院記)>, <정관정요(貞觀政要)>, <수성사감(守成事鑑)>, <장기(章記)>, <노걸대(老乞大)>

3.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의 오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에서는 1991년 10월에 몽골국립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뒤를 이어서 몽골외국어대학교(지금의 인문대)는 1992년에 개설되었다.

1993년에 울란바타르대학교의 전신인 한국어어학원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1995년에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가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그리고 1994년에는 시립울란바타르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다. 또 2000년에는 국립사범대학교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그 수는 꾸준히 늘어 2010년 현재 몽골의 30여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학과나 한국학과가 정식으로 개설된 대학은 19개 대학에 이른다.⁹ 이제 주요대학들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3.1 주요 대학의 한국어학과 개설 및 현황

1990년대 초의 한국어 강사는 주로 한국인 유학생들과 외교관 부인이나 선교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단원들이었다. 몽골인 교수는 북한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당시 교수들은 전문성이 많이 모자랐지만 열성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 몽골 대학에서 전임교수로서 가르치는 한국어 교수는 몽골인이 약 72명이고, 한국인이 51명으로서 양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¹¹

⁸ 오늘의 한류는 이미 고려시대에 ‘고려양’의 형식으로 몽골에 있었다.

⁹ 몽골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는 대학

몽골 국립대학교 / 인문대학교 / 국립울란바타르대학교/ 울란바타르대학교/ Orkhon 대학 / Oyu 대학 / 국립 사범대학교 / Monkh-Anu 대학 / 관광 가이드 대학 / 한몽 기술대학 / Darkhan 대학 / 언어학자 대학 / 신 Darkhan 대학 / 과학 기술대학교/몽골정보대학 / Enkh-Orchilon 대학 /Otgon-Tenger 대학 /Ikh Zasag 재상 대학/ Khovd 대학/ Seruuleg 대학 / 식품 기술대학 / Soyombo 대학 / Khuree 대학 /몽골 국제대학 /몽골 Naadam 대학 /국립 농과대학교

¹⁰ 이것은 권성훈 교수의 ‘몽골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2009)’을 참조한 것이다.

¹¹ 권성훈(2000:94)의 ‘몽골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을 보면, 2000년에는 한국인이

1)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몽골국립대학교는 1942 년에 소련의 원조로 설립된 몽골 최초의 4 년제 종합대학이다. 이 대학에 1991 년 10 월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1994 년에는 한국학과로 개명하였다. 현재 주임교수는 서울대에서 한국어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샌빌렉트(D.Sainbilegt)이다. 전임교수는 6 명(한국인 2 명, 몽골인 4 명)이다.¹²

2)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1992 년 9 월 몽골외국어대학교(인문대학교의 전신)의 동양어학부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2003 년에는 한국어학과를 한국학과로 개명하였다. 처음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단원인 김봉춘과 강의현이 교수로 강의를 하였다.

현재 주임교수는 이 대학에서 1997 년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선수 교수이며, 전임교수는 5 명(한국인 1 명, 몽골인 4 명)이다.

인문대학교 한국학과는 1997 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올해로 12 회를 맞았는데, 1 등에게는 한국대학에서의 3 개월 어학연수와 왕복항공권을 부상으로 시상했다. 몽골 대학생들의 참여도가 높다.

또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인 TOPIK (Test of Proficient in Korean)을 이 대학 한국학과에서 맡아서 시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어교수협의회’에서 하던 것인데, 2001 년 제 5 회 시험부터 최선수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 지난 4 월 19 일에 실시된 제 15 회 TOPIK 에 556 명의 몽골인이 응시했다.

20-30 명, 몽골인이 10 명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009 년에는 몽골인 63 명 한국인 45 명으로 조사되었다.

¹² 1991 년 이후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에 몸담았던 한국인 교수는 계로이(1991-1997), 이성규(1991-1992), 이평래(1991-1994), 권성훈(1992-현재), 강신 (1993-1996), 박병욱(1994-2001), 계승희(1995-2000), 계민석(1996-1999), 박창진(1998-1999), 김용숙(1998-2000), 장장식(1999-2001), 방수영(2004-2006), 남정주(2005-2007), 이민선(2006-2008), 송병구(2006-2007), 정재도(2008-) 등이다.

3)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과와 한국학과

한국인이 몽골에 세운 최초의 사립대학인 울란바타르대학교는 1993년 가을부터 한국어교육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1995년 4월 18일에 교육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였다.

2009년 현재 한국어과 주임교수는 베.알타이(B.Altai)이며, 전임교수는 10명(한국인 3명, 몽골인 7명)이다. 이 대학의 한국어과는 규모에 있어서 몽골에서 가장 크다. 다수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관련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최신식 사이버 어학실습실도 갖추었다. 한국학과는 2003년에 신설되었다. 주임교수는 아디아수렝(S.Adiyasuren)이며, 전임교수는 6명(한국인 3명, 몽골인 3명)이다. 이 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이는 이안나 교수와 이탄미 교수이다.

그리고 최기호 교수는 1995년부터 객원교수와 석좌교수로 일하였고 대학원에서 강의와 논문지도를 해 왔다. 현길언(한양대)교수도 석좌교수로 와서 한국학 연구소장을 맡았고 대학원 강의를 하며, 석사학위논문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어과와 한국학과의 1, 2학년 교과과정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3, 4학년의 한국어과는 주로 번역 과목들이, 한국학과는 한국의 역사, 민속학, 지역학, 정치·경제 등의 과목이 전공필수로 설정되어 있다.

4) 국립 사범대학교 한국어과

국립 사범대학교의 한국어과는 2000년에 설립되었다. 주임교수는 2003년부터 송의민이 맡고 있으며, 4명의 전임교수(한국인 2명, 몽골인 2명)가 일하고 있다.

이 대학의 한국어과는 한국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다. 한글학회에서 주관하는 한국말 인증시험(KLP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이 대학의 주임교수인 송의민 교수가 맡아서 시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10,000명이 몰렸다고 하니 몽골 전체 인구가 280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숫자다.

5) 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과

몽골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과학기술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설치된 것은 2004 년의 일이다. 주임교수는 일반 언어학을 전공한 베. 데데르마(B.Dedermaa)이다. 5 명의 전임교수(한국인 1 명, 몽골인 4 명)가 일하고 있다.

이 대학 한국어과에서는 전공을 세 분야로 나누어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① 한국어-영어 전공, ② 영어-한국어 전공, ③ 기술 한국어 전공.

한국어-영어는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고 영어를 부전공으로 하며, 영어-한국어는 반대로 영어를 전공으로 하고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한다. 기술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은 과학·기술 관련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3.2 몽골 대학의 교과과정

1)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의 교과과정

한국어 교육은 1, 2 학년에 회화, 쓰기, 문법, 한자 등이, 3, 4 학년에 한국역사, 경제, 문학 등 한국학 주요과목들이 설정되어 있다. 한-몽, 몽-한 번역과목은 2 학년에 사회·정치 번역은 3 학년에 비즈니스·법률 번역은 4 학년에 설정되어 있다.

2)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교과과정

인문대학의 교과과정은 1, 2 학년에서 회화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3, 4 학년에서는 관광·여행, 공문서, 경제·경영, 사회·정치·언론, 법률, 과학기술, 문학(속담, 관용적 표현을 중심으로) 번역을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3.3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출판

2000 년 이전에는 한국인 교수들이 교재 개발을 주도했다면, 현재는 몽골

인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다.

또 다른 변화는 몽골 대학들이 한국어과에서 한국학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언어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과학·기술 등 다양한 전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은 대학원을 진학할 때 한국어문학이나 한국어 교육을 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학 전공자는 전공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이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각종 교재 출간 현황을 중요한 것 일부만 예시 하겠다.

1) 한국어 학습교재 및 사전 출간 현황

권성훈(2000:93)에 따르면 1991-2000년까지 총 23종의 한국어 학습 교재가 몽골에서 출간되었다.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와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과·한국학과를 중심으로 꾸준히 한국어 학습교재와 사전류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그 중 대표적인 업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출간한 “한몽 사전(2004)”. 총 1,243쪽에 표제어는 40,000여개에 이르며 집필에만 4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 (2) 한국의 방성원, 우인혜 교수와 몽골의 데. 샌빌렉트, 데. 에르덴수렝 (D.Erdenesuren) 교수가 공동집필한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I·II(2008)”. .
- (3)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과·한국학과에서 출간한 “몽한 사전 (2009)”. 1966년에 야. 체벨(Ya.Tsevel)이 저술하고, 그의 아들 체. 삭다르수렝(Ts.Shagdarsuren) 교수가 증보한 “Mongol khelnii tovch tailbar toli 몽골어 풀이 소사전”을 기저로 집필했다. 총 1,203쪽에 표제어는 35,000여개에 이른다. 3년에 걸친 사전작업의 총책임은 이안나 교수, 부책임은 여병무 교수가 맡았으며, 24명의 교수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완성했다. 이 사전에는 몽골의

유목문화와 관련된 어휘와 의성어·의태어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몽골학 및 알타이어학 연구자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4. 맺음말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은 단기간에 양적,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문제점도 있다.

1) 교수의 전문성 부족이다.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 교수가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란바타르대학교에서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서 교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2) 교과과정의 비현실성

현행 교과과정이 한국어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몽골국립대학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과과정의 번역 과목을 보면 2 학년에 사회·정치 번역, 3 학년에 비즈니스·법률 번역, 4 학년에 문학 번역이 배정되어 있다.

한국어를 배운지 1 년밖에 안 되는 2 학년 학생들에게 전문용어들이 즐비한 사회·정치 번역과목은 무척 부담스럽다. 한국어 교육의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3) 교수방법의 문제점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의에 시청각교수법, 문화교수법 등 다양한 교수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시청각 자료와 기자재, 교수요원의 역량이 부족하다.

4) 교재개발에 있어서 전문가들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

교재개발을 위한 전문가들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출간된 36종의 한국어 교재 중에서 단독저자에 의해 집필된 교재가 무려 25종에 이른다. 교재는 단독집필보다는 가능한 한 공동집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한국과 몽골 양국이 노력하여 한국어의 사회적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간다면 한국어는 몽골에서 각광받는 제 2 외국어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성훈(2000),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연구, 한·몽 수교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몽골 국립대학교.
- 권영순(1995), 한·몽골 현대 교류사, 한·몽골 교류 천년, 한·몽골 교류협회.
- 최기호(2000), 청산별곡의 형성 배경과 몽골 요소, 문학한글 14집, 문학한글학회.
- 최서면(1990), 최서면 몽골기행, 삼성출판사.
-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Erdenechimeg.G(2008), 몽골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아시아 한국학 입문, 인하 BK 한국학 사업단, 역락.
- Sainbilegt.D(2006), 몽골의 한국어 교육 및 한몽 문화의 이해, 한글·한국어의 세계화, 한글 창제 560돌 기념 국제 심포지엄.

(울란바타르대학교 교수, 총장)

韓国語教育研究 創刊号 (第1号)

2011年9月15日 発行

発行者 姜 奉植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161-853 東京都新宿区中落合4-31-1

目白大学外国語学部韓国語学科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文慶喆・金鉉哲・李善姫・宋貞熹・柳朱燕

印刷所 (株)ENTERPIA PRODUCTION